

지역 소식통

김제시립도서관
수강생 작품 전시회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오는 10일까지 시립도서관 1층 로비에서 도서관 아카데미 수강생들의 열정과 창의력이 담긴 작품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는 도서관 아카데미 예술분야 수강생들이 그동안 갖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한 40여 점의 다양한 작품들을 한 자리에서 관람할 수 있으며 각 작품에 담긴 메시지와 예술적 표현이 소개될 예정이다.

지도 강사들은 "서예, 문인화, 한국화의 예술작품을 보고 있노라면 처음 도서관에 왔을 때의 초보자들은 사라지고 어느덧 놀랍도록 성장한 작가들의 모습이 투영된다."고 말했다.

작품전시회는 무료 관람이며 지역주민들과 예술 애호가들에게 문화적인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 감염병 관리
국무총리 기관 표창

완주군이 질병관리청에서 주관한 '2023년 감염병관리 유공자 포상'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군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해마다 전국 256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우수기관을 선정해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완주군은 △법정감염병 의료기관 신고기한 준수율 △만 65세 어르신 폐렴구균 접종률 △만 12세 HPV예방접종률 △지자체 감염병분야 자체 지역협력사항 등 지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국무총리표창(기관상)의 영예를 안았다.

완주군은 그동안 국가예방접종 대상자에게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접종률을 높이고 감염병 신고 및 보고체계를 구축하는 등 감염병 관리에 힘써왔다.

국가예방접종 외에도 대상포진, 만 14~64세 독감 예방접종 등 자체예방접종을 실시했으며, 꾸준한 지역협의체를 운영해 지역사회 내 감염병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앞장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완주=염재복 기자

완주 와일드앤로컬푸드축제 성과 분석

“체험프로그램 주효해 방문객 ‘최다’·매출액 ‘최고’”

완주군이 제11회 완주 와일드앤로컬푸드축제의 성과를 분석하고 전북 대표축제로 거듭나기 위한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지난 4일 완주군은 중회의실에서 지난 10월에 열린 '제11회 완주 와일드앤로컬푸드축제'의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 4일 완주군은 중회의실에서 지난 10월에 열린 '제11회 완주 와일드앤로컬푸드축제'의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유희태 완주군수와 임필환 축제추진위원장을 비롯해 행정, 전문가, 주민 40여 명이 참석해 축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올해로 11번째를 맞이한 완주 와일드앤로컬푸드축제는 '더 와일드한 완주, 더 로컬푸드한 완주'를 주제로 지난 10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완주군 고산자연휴양림 일원에서 성황리에 치러졌다.

3일간 13만4,000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해 역대 최대 방문객수와 최고 매출액을 기록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뿐만 아니라 축제의 핵심 정체성인 와일드와 로컬푸드를 상징하는 체험과 먹거리를 가득 채워 방문객과 전문가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축제 모니터링 결과보고를 발표한 전영호 군장대학교 교수는 맨손물고기 잡기, 트라이스트립 체험 등 대표 체험프로그램의 차별화 전략에 성공의 요인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화용기 사용 확대를 통한 환경친화적 축제, 바가지 요금 없는 축제를 위해 노력한 부분을 높이 평가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올해 축제는 완주 와일드앤로컬푸드축제가 전북의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며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해 관광객과 주민이 함께 행복한 축제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지난 4일 정성주 김제시장이 관내 9남매 다동이 가정을 방문하여 다자녀가정 양육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경험을 공유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김제시, 다자녀가정 지원 나선다

정성주 김제시장, 광활면 9남매 다동이 가정 격려 방문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저출산 극복의 일환으로 든든한 양육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일 정성주 김제시장이 관내 9남매 다동이 가정(이승현·김미정 부부)을 방문하여 다자녀 가정 양육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경험을 공유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이날 방문에는 김제시 다자녀가정 매칭 후원사업을 통한 (유)신포유리식품(대표 박양진)의 기타 물품도 함께 전달되었다.

이들 부부는 지난 8월 아홉 번째 자녀의 출생으로 슬하에 9남매(4남 5녀)를 둔 다자녀 양육가정이 되었고 밝고 화목한 모습과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넣는 모범적인 가정을 이뤄 지역사회 내에 귀감이 되고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전국적인 저출산 속에서 김제시의 출산 장려 문화에 앞장서 준 것에 감사하다"며 "9남매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헌신적인 모습을 통해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앞으로 9남매가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김제시는 출산 및 양육 정책으로 △출산장려금(첫째아 1,000만 원, 둘째아 1,500만 원, 셋째아 1,700만 원, 넷째아 1,900만 원, 다섯째아 이상 2,000만 원) 첫만남 이용권 포함 △출산축하용품(마더박스) 50만 원 상당 △다자녀가정 양육비 10만 원, 육아용품 25만 원 상당 등의 지원을 통해 다자녀 가정 양육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 전수조사

2024-2026년, 리·동 단위 조정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바로잡아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도로개설, 기타 생활권 등의 변화로 1개의 필지가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어 주민의 불편뿐만 아니라 행정력이 낭비되는 사례에 따른 것이다.

사실 자연촌락을 기준으로 형성된

리·동간 행정구역 경계는 1910년대 지적도가 그려지면서 생긴 것으로 110여 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러 변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김제시는 2024년 교월동과 서부지역(만경읍, 죽산면, 부림면, 성덕면, 진봉면, 광활면)을 시작으로 3년에 걸쳐 전수 조사하고 불합리한 행정구역에 대해서는 관할구역 조례도 개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읍면동 사업설명회와 주민들의 신청·의견청취 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에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가 정비되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나 토지거래 개발사업, 재난 등이 행정의 일처리 행정능률과 신속한 대응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주민들의 뜻을 고려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이는 조례개정을 담당하는 부서(총무과) 협업의 결과"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 대상자 맞춤형 전문치유농업 육성

치유프로그램 6종 개발... 노인·아동·청소년 등 대상

완주군이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장을 육성해 치유농업 선도지역으로서의 면모를 다지고 있다.

5일 완주군은 올해 전문치유농장 육성을 위해 농장 맞춤형 치유자원을 발굴하고 치유프로그램 컨설팅·개발과 치유공간 조성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 결과 치유효과를 높일 수 있는

대상자 맞춤형 치유프로그램을 농장별 2종씩 총 6종 개발했다.

이 프로그램은 생애주기별 대상자인 노인, 아동, 청소년뿐만 아니라 특수목적형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8회기 이상의 전문치유프로그램으로 대상자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시, 건강지표 모니터링 세미나

맞춤형 보건사업 추진 나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5일 보건소 대회의실에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2024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2023년 건강지표 모니터링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진행된 세미나는 보건소 소장과 실무 담당 등 50여 명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단이 참석해, 지역사회 현황 분석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고 2차년도(2024년) 시행계획 수립과 연계를 위한 강의를 듣고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추진전략별 성과지표

이행에 필요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단의 역량을 강화하고, 중장기 추진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실행력을 가진 연차별 계획을 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계획 대비 이행 결과를 점검하고 개선 필요 사항을 도출하여,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추진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제시는 지난 7월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성과대회에서 보건복지부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여한 바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